

투데이

“KTX 송정~목포 현 철도 써라”

국토부 “고속철 신설 않는다” 통보 “무늬만 고속” 광주·전남 강력 반발

정부가 호남고속철도의 광주 송정~목포(임성리) 구간에 고속노선을 신설하지 않고 기존 철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확정, 전남도에 공식 통보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호남고속철도 광주 송정~목포 임성 구간 노선에 대한 용역결과를 토대로 고속철을 신설하지 않고 기존 철도만을 활용하는 안을 정부 최종안으로 확정하고 전남도에 ‘호남고속철(KTX) 기본계획 변경 협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정부가 최종 확정된 노선안은 호남고속철도 4개 대안노선 중 ‘나주역을 경유하고 함평에서 무안공항으로 지선으로 연결되는 노선(76.1km·9700억원)’으로, 소요시간은 19분이다.

이 안은 지난해 말 한국철도시설공

단이 노선평가선정위원회를 열고 종합평가위원 20명 중 17명이 참여해 ‘교통·사업성·정책·환경측면’ 등 4개 부문을 대상으로 진행된 3차례의 평가 결과에서 종합환산점수(0.413점)가 가장 높았다.

하지만 고속철을 신설하는 게 아닌 기존선로(59.5km)를 개량, 활용하는 것으로 평균 시속이 188km에 불과하고 최고 속도도 시속 230km에 그쳐 사 ‘무늬만 고속’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또 무안 공항을 연결되는 노선도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J프로젝트) 및 무안기업도시 개발 등으로 인한 교통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무안공항 활성화를 감안한 ‘고속선’이 아니라는 점에서 전남도를 비롯한 지역민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특히 박준영 전남지사는 지난 5월



열린 ‘도민과의 대화’에서 KTX 광주~목포 구간 노선과 관련, “정부가 노선 선정에 대한 최종 입장을 공식 발표하면 ‘스톱’을 요청하겠다. (그대로 진행될 경우) 소송이라도 할 것”이라며 “국가 예산을 그렇게 낭비해서야 되겠느냐”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박 지사는 당시 “2조원이 드는 신설 노선이 아니라 1조원을 들여 기존선을 개량, 활용하겠다는 1조원을 그렇게 버릴 필요없다”면서 “기존선을 활용해 추진할 거라면 이 정부에서 손을 떼는 게 좋겠다”고 언급했다.

전남도도 당장,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강하게 반발할 태세다. 전남도 관계자는 “정부 공식 입장이 확정, 통보된 만큼 기존 전남 지역민들의 반대 의견을 전달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도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고속 신설로 건설될 수 있도록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기획재정부 및 전남도 등 관련기관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짓고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 뒤 광주~목포 구간 고속철 공사를 시작할 방침이다.

호남고속철 차량 3차 입찰도 유찰

호남고속철도 차량을 2014년 말까지 도입하기 위한 국제경쟁입찰이 끝내 유찰됐다.

19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따르면 3차 국제경쟁입찰을 이날 오후 4시 마감한 결과 현대로템만 응찰했다. 앞서 1차와 2차 입찰에서도 현대로템만 응찰해 유찰됐다.

공단은 관련 법령에 따라 평가위원회가 현대로템의 제안서를 적격하다고 평가되면 수의계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與·野 “국회 정상화·예산안 연내 처리” 합의

22일 본회의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연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지난달 22일 민주당이 여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단독 처리를 이유로 등원 거부에 나선 지 한 달여 만이다.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이 같이 합의했다고 양당 대변인이 밝혔다.

여야는 이날 오후 6시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를 정상 가동하고, 22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및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 공격 사건에 대한 긴급현안질의를 갖기로 했다.

30일에는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

용계획안을 합의한 뒤 표결처리하기로 했다. 특히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간 한·미 FTA 재협상 논란과 관련해서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 폐기·유보·수정 등을 포함하는 한미 FTA 비준안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했다. 또 예산안 처리에 앞서 한나라당의 반대로 6개월째 표류하던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도 표결 처리하기로 했다.

J프로젝트 구성지구 땅값 분쟁 오늘 마무리

1년 가까이 끌어왔던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J프로젝트)을 둘러싼 땅값 분쟁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와 한국농어촌공사는 21일 오전 11시30분 서울 동부지법(민사 42부 이동식 관사)에서 열리

는 J프로젝트 내 구성지구(해남군 산이면 구성리 일대 21.87km) 감정 평가에 대한 3차 민사조정(調停) 결과를 받아들여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조정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무조건 따르겠다는 것으로, 올해 초부터

이어졌던 구성지구 땅값 문제가 마침내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J프로젝트 4개 지구 중 사업 추진 속도가 가장 빠른 구성지구의 감정 평가에 대한 민사조정 결과는 J프로젝트 다른 사업지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더 이상 시간을 끌어서는 안된다”는 점에 대해 양측이 모두 공감하고 있어 이번 법원 결정이 최종 결론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국농어촌공사측도 “양측이 조정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만큼 땅값 분쟁도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상가 임대
(구)그랜드 호텔

구시청 사거리 먹자타운 황금동 의류타운

시내중심상가
(모든업종가능)

(구)그랜드 호텔부지! 철거완료!
토지면적 2247㎡ (680평)
지하 1256㎡ (380평)

문의 062)228-3332
H,P 010-4794-8092

(주)미투종합건설

고혈압과 고지혈증 동반질환자 대상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

항고혈압 제제와 항고지혈증 제제의 복합제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에 참여할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1. 자격 요건

- 만 19세 이상 75세 이하
- 고혈압과 고지혈증 동반질환자(수축기 혈압(SBP) 130mmHg/이완기 혈압(DBP) 80mmHg 이상,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LDL Cholesterol) 100mg/dL 이상) 대상자에 적합한지 알아보기 위해 추가로 검사를 실시합니다.

2. 참여 기간

- 본 임상시험의 목적과 방법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듣고 서면으로 동의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검사를 실시한 후, 연구에 적합한 경우 약 12~14주간 총 4~5회 방문을 하게 됩니다.

임상시험에 참여하시면 8주 동안 임상시험용 의약품이 제공되며, 정기적인 검진과 임상시험과 관련된 각종 혈액 검사, 뇨검사, 심전도검사 및 소정의 교통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시기관 : 전남대학교병원
·문의처 : 010-4095-1850

제7회 모범시민·단체대상 수상자 공모
(개인·단체 : 질서·친절·청결부문)

광주시민사회단체총연합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질서·친절·청결 부문에 공로가 크신 개인과 단체를 표창하고자 다음과 같이 대상수상 후보자를 공모합니다.

- 다 음 -

- 접수마감 : 2011년 12월 22일(목) 오후 5시 까지
- 접수처 : 광주시민사회단체총연합 사무실
- 구비서류 및 양식 : <http://www.gjngo.kr//> 커뮤니티 게시판 공지사항
- 기타문의 : 062-227-0402, 011-2627-4702

광주시민사회단체총연합

김정일 사망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인 김정은이 20일 당 간부들과 김 국방위원장 영전에 조의를 표하고 있는 장면을 북한 조선중앙 TV가 보도하고 있다. (Y 캡처)

김정은 北 장악 힘로 예고

아직은 '수습' 수준...장성택·군부에 명운 달려

불과 20대 나이에 북한의 영도자에 등극한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의 앞날은 기약할 수 없는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발표 직후 김정은 부위원장을 ‘영도자’ ‘계승자’ 등으로 표현하며 ‘김정은 체제’ 출범을 알리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도 김정은 체제를 사실상 인정했다.

그러나 권력승계에 15년이 넘게 걸린 김정일과 달리 김정은은 2009년 1월 김 위원장의 후계자로 내정된 뒤 1년 9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속전속결로 후계수업을 마치고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라는 직함으로 후계자로서 업무를 시작했지만 그동안

사실상 ‘수습’ 수준에 머물렀다. 어린시절부터 외부와 차단된 생활을 해 김정은 체제를 떠받들 정치적 인맥도 매우 취약한 편이다.

전당과 전민에 통치력을 갖고 있는 노동당은 고모부인 장성택 행정부장이 장악하고 있고 최룡해, 김영일, 김양건 비서 등 장 부장의 사람들로 거의 채워져 있다.

김정은 후계체제 이후 고속승진을 거듭하며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 임명돼 군부 실세로 급부상한 리영호 총참모장도 사실상 장 부장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문제는 군부의 야심이다. 리영호뿐 아니라 군 부력을 장악하고 있는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군 정

치 책임자인 김정각 총정치국 제1부국장 등 실세들은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 와중에 오로지 자신들의 영향력 확대에 열을 올렸다는 후문이다.

권력층 내에서는 김 위원장의 사망 직후부터 졸권 김 위원장이 오래 살지 못하고, 20대에 불과한 김정은 체제도 불안정할 것이라는 판단이 지배적이었다고 한다. 이 때문에 권력층은 김 위원장을 대신해 사실상 국정을 운영하고 권력을 쥐고있는 김정은과 장 부장 사이에서 눈치보기와 ‘양다리 걸치기’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나마 김정은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핵심세력은 국가안전보위부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결국 당분간 장 부장과 군부에 의지해 권력을 안정화시켜야 하는 상황이다. /연합뉴스

29세 새 ‘영도자’ 김정은

야심·저돌적...개혁·개방은 적극적?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서른 살도 되지 않은 ‘어린 후계자’ 김정은의 어깨가 무거워졌다. 북한이 19일 김 위원장 사망을 발표한 뒤 신속하게 김정은을 새 영도자로 사실상 선포했기 때문이다.

김정은은 지난해 9월28일 제3차 노동당 대표자회에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공식 데뷔한 뒤

북한의 ‘황태자’로 입지를 다져왔다. 북한 전문가들은 김정은에 대한 분석에 힘쓰고 있지만 북한 체제의 폐쇄적 특성 탓에 아직 베일에 싸인 부분이 많다. 그는 1983년 1월8일 김 위원장의 세번째 부인 고영희에게서 태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명확히 확인된 것은 아니다.

김정은은 2002년부터 2007년 4월

까지 5년째 군간부 양성기관인 김일성군사종합대학을 다녔다.

김정은의 성격과 성향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정치적 욕심이 강하고 저돌적인 면이 있다는 게 주변 인사들의 대체적인 전언이다.

김정은이 김 위원장의 후계자로 본격적인 권력을 잡을 경우 어떤 정책을 펼칠지를 놓고는 전망이 엇갈린다. 일각에서는 김정은이 외국에서 서양문화를 접한 만큼 개혁·개방에 아버지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반면 김정은 체제 때의 폐쇄적인 정책을 크게 바꾸기 어렵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연합뉴스